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B형 정답

1	①	2	①	3	①	4	⑤	5	②
6	②	7	④	8	③	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⑤
16	①	17	①	18	③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③	24	②	25	②
26	⑤	27	⑤	28	②	29	②	30	⑤
31	③	32	④	33	⑤	34	②	35	④
36	②	37	④	38	②	39	⑤	40	①
41	①	42	③	43	⑤	44	③	45	③

국어 영역

B형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평가하기
A형 1번 해설 참고.

2. [출제의도]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A형 2번 해설 참고.

3. [출제의도] 논제의 성격 파악하기
이 토론의 논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고, 적절한 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이 상대방의 판단보다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논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필요한 논제이다.

4.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선의의 거짓말로 예상치 못했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이다. 따라서 반대 측은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선의의 거짓말로 상호 간의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찬성 측의 주장이 아니다. ③ 반대 측은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은 이와 관련이 없다.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중은 선의의 거짓말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찬성 측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 작문 ****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제시한 후(①), 인문학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정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③). 그리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④).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인문학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인문학 열풍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사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⑤)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7. [출제의도] 개요를 바탕으로 글쓰기 점검하기
학생의 초고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보기>의 (가)에서 프랑스는 인문학 교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나)에서는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재의 인문학을 처세의 수단과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생각이다. 따라서 ⓐ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인식 전환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A형 9번 해설 참고.

10.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하기
A형 10번 해설 참고.

**** 문법 ****

11. [출제의도] 부정 표현 탐구하기
ㄴ은 '해가 비치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이며, 긴 부정문뿐만 아니라 짧은 부정문이 모두 가능하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A형 14번 해설 참고.

13. [출제의도] 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여닫이'의 '여-'는 '열다'의 어간 '열-'이 '닫다'와 합성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로 제28항에 해당한다.
① '칼날'을 [칼랄]이라고 발음하지만 제27항에 의거하여 '칼날'로 표기한다. ② '소나무'는 제28항에 의거하여 '솔나무'라고 표기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탐구하기
'사랑할수록'은 '사랑하다'의 어간 '사랑하-'에 '-ㄹ'로 시작하는 어미 '-ㄹ수록'이 결합한 경우이다. 따라서 제27항 [붙임] 규정을 적용하여 [사랑할쑤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④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의하면, '갈 데가'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갈떼가]로 발음한다.

15.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A형 15번 해설 참고.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법 비교하기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이다. '-시-'는 목적어 즉 객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③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즙-'을 사용하여 실현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 인문 ****

□ 출전: 주현성,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스틸은 개인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 5~7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공통된 생각 파악하기
2문단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다양한 규제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소쉬르는 '랑그'로 설명하였다. 2~3문단에서 바르트는 소쉬르의 이론을 이어나가 언어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랑그 이외에 '스틸'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학자의 공통된 생각으로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바르트의 관점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집단 구성원들이 그들의 에크리튀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때,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미는 것이다. <보기>에서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일기를 기사문처럼 쓴 것이지, 일기를 의식적으로 기사문처럼 쓴 것은 아니다.

① A씨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한 약속이며 개인적 발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체계인 랑그의 규제를 받고 있다. ⑤ A씨의 논리적 글쓰기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격식'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을 의미한다.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은 '제정'의 의미이다.

**** 사회 ****

□ 출전: 안광호·곽준식,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본 소비자 의사결정>

21.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 파악하기

1문단에서는 맥락 효과의 유형을, 2문단에서는 유인 효과의 개념과 예시를, 3문단에서는 타협 효과의 개념과 예시를, 4문단에서는 맥락 효과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타협 효과의 한계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는 유인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는 ㉯에 비해 품질이 우월하고 ㉯는 ㉮에 비해 가격 면에서 저렴하여 우월하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 면에서 ㉮와 ㉯는 상충 관계에 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보다 열등한 에어컨 ㉰가 출시되고 ㉮의 선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는 유인 대안이고, ㉰의 출시로 선택 비율이 높아진 ㉮는 표적 대안, 선택 비율이 낮아진 ㉯는 경쟁 대안이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은 타협 효과와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타협 효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안 평가가 어려울 때, 자신이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의 중간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 따라서 저기능-저가의 카메라에 밀려 팔리지 않는 자사의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해 고기능-고가의 카메라를 출시하면, 기존의 자사 카메라는 중간 수준이 되어 이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은 타협 효과와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과학 ****

□ 출전: 강효진 외, <해양학>

2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조석 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이유를 달의 인력만이 아니라 태양의 인력, 달의 인력, 원심력의 합력인 기조력이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을 볼 때 태양은 달보다 큰 질량을 갖지만 달에 비해 지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기조력은 달의 위상에 따라 지구 내에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그림은 태양과 달이 지구와 일직선에 있는 상황과 지구와 달이 직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서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에는 기조력이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아져 '조금'이 나타난다.

**** 예술 ****

□ 출전: 지영래, <사르트르의 미술론>

2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A형 27번 해설 참고.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A형 28번 해설 참고.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A형 29번 해설 참고.

30.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A형 30번 해설 참고.

**** 현대시 ****

□ 출전: (가)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나) 신경림, <목계장터>

3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울 듯 울 듯'과 '~사라질 게다'의 반복을 통해, (나)는 '~되라 하고'와 '~되라 하네'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짓는 웃음으로 볼 수 있다. 함경도 사내에게 연민을 느껴 짓는 웃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북간도 술막'을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 같은, '이웃도 못 미더운' 공간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북간도 술막'이 불안하고 두려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너의 나라'는 '너의 사투리', '수줍은 분홍 댕기'를 볼 때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함경도 사내가 벌판에 나서는 비장한 정서를 드러낸 표현이지만, (나)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은 잠시나마 쉬고 싶은 정서를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봄을 불러줄게'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에게 '너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여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갈래복합 ****

□ 출전: (가)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나) 정약용, <파리를 조문한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배를 만든 '헌원씨'와 불사약을 찾기 위해 일본에 사람들을 보낸 '진시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화자는 배를 만들어 왜적이 침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헌원씨'를 원망하고 있지, 추모하는 것은 아니다.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에서 필자는 대비를 통해 '어진 이'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소인배'가 비방만 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결국 백성들이 모두 죽어 가는 상황에서 호소할 곳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① ㉠은 기근, 추위, 전염병, 가혹한 착취를 열거하여 백성들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는 '배'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에서 '빈 배'는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는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주사로 임명받아 '진동영'으로 내려와 배 위에서 '우국단심'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화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듯이 임금이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조웅전>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왕 부인이 송 태자가 폐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 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와 송 태자가 유배된 것을 볼 때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이두병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관원들은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악의 세력과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이지 선의 세력에 의해서 악이 축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① 이두병은 반역을 통해 황제가 되고 송 태자를 폐하는 모습에서 악의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지라'에는 악과 대결하려는 조웅의 욕망이 드러나 있다. ④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등을 통해 조웅이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이두병이 황제가 되고 송 태자가 폐위당하자 후궁과 벼슬아치들,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치며 슬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듯하고', '~듯하더라'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조웅의 태도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이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과 현재 상황에 대한 조웅의 근심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④ ㉣은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부당한 일임을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이두병의 명령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조웅 모자가 이미 멀리 달아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염상섭, <삼대(三代)>

4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형 34번 해설 참고.

4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A형 35번 해설 참고.

43. [출제의도] 중심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A형 36번 해설 참고.

44. [출제의도] 인물 간의 대화 양상 파악하기
A형 37번 해설 참고.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A형 38번 해설 참고.